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구 한 편, 모로코와 리비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루속히 도움의 손길들과 피해복구가 되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은 다음주면 추석이네요.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들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것 같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추수에 대한 감사일이 없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 해 동안 풍성히 채우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가족분들과 함께 그 감사함을 나누는 귀한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막촌에서는

새벽 7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천막촌 길거리 쓰레기 더미위에 핀 작은 들꽃을 보았습니다. 작고 어린 들꽃이었지만 쓰레기 더미위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천막촌들에 있는 무수한 가정 가운데 센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제자 양육을 받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꽃이 그 어린 자매들 같았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쓰레기 더미 같은 곳, 그 곳에 힘있어 보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꽃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키우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실 그 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언젠가 이 쓰레기 더미가 아름다운 들꽃들로 뒤덮힐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 포대 자루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 넣고 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 자루 안에는 새벽부터 쓰레기통을 뒤져 모은 플라스틱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겠지요. 새벽녘에 천막촌은 싸늘합니다. 겨울이 오면 땀감이 비싸서 버려진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을 주어다가 땀감을 씹니다. 실내는 따뜻할 수 있으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유해한 연기들을 마시며 겨울을 납니다. 저 어린들이 짊어진 자루에 소망이 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유해한 것들이 아닌 생명이 담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동정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을 위해 함께 아뢰어 주세요.

센터에서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 교사들과 재봉반 자매들을 위해 가을 나들이를 계획 하셨습니다. 모두 새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요. S국 전통 음악을 틀어주면 서로 모여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춥니다. 평상시 너무 조용하고 암전했던 이들이 신나게 뛰며 춤추는 모습들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몇 시간을 춤을 췄던 알리아는 다음날 피곤해서 힘들어 했지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을 위해 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천막촌 밖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도 오늘은 너무 즐거운 소풍날이었겠지요. 지금은 나들이를 통해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냈지만 언젠가는 신랑되신 ㅇ스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쁨의 ㅇ배를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10월에 한국에서 제가 속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 모임이 있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6년만에 단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열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재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23(월)일 부터 28일(토) 까지 ‘스기 완성을 위한 미래 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앞서서 일하고 계신 스님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 스기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길을 다짐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위해 아뢰어 주십시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며 제가 밟고 있는 땅과 열방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자라기를, 그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2023. 9. 22 레국에서 박주희 올림

함께 아뢰어 주세요.

1. 레국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통해 주변 국가들에게도 보금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소서.
2. 센터가 개학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학생도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센터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 뿐 아니라 ㅇ스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참된 스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3. 10월에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 방문하는 일정을 통해 재충전 되게 하시고 귀한 만남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 하심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소서.